

창조, 타락, 구속, 회복

2021년 9월 5일 설교 크리스 식스 목사

오늘은 결혼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현명한 아내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기 전에 하나님의 이야기의 큰 그림에 대해 설교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할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큰 책으로 네 장에 하나의 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의 첫 번째 장은 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모든 것이 아주 좋았습니다.

정원에는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창조의 첫 두 사람인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빨리 악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영어로 우리는 이 두 번째 장을 Fall 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첫 번째 죄는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반란군은 왕과 싸우고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반역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의 평화의 나라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슬픈 결말로 끝날 것이지만,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 장은 구속 또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인간으로 태어나 완전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반역자들이 아들딸이 될 수 있도록 반역자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구속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정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낡고 부서진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복원까지.

우리는 이 부서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야기 4 장을 희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죄도, 눈물도, 반역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평화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것이 이야기의 네 챕터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처음 두 장에 대해 배웁니다.

그런 다음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신약성경은 3 장과 4 장에 대해 알려줍니다.

함께,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빅 스토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 구조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위해 저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의 네 장을 모두 빠르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야기의 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말로 나보다 이야기를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아계신 예수님께 여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순종적이고 즐겁고 생산적인 아들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의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를 더욱 예수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hapter 1: 창조

하나님의 큰 이야기는 정원에서 시작하여 도시에서 끝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원과 도시 사이의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이해하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으로.

창세기 1:1-3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또한 삼위일체의 세 위격 모두가 창조에 관련되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말씀하신 살아 있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만드신 후 하늘과 땅을 나누십니다.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각 장소를 올바른 종류의 피조물로 채우십니다.

하늘을 위한 새.

바다를 위한 물고기.

땅을 위한 식물과 동물.

좋은 계획이다.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물을 즐기게 하십니다.

창세기 1:26-27

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여러 면에서 우리를 그와 같이 만드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상에서 그의 대표자입니다.

우리는 누가 참 창조주이시며 왕이신지를 세상에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조각상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두 종류의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의 여러 측면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존엄성과 가치가 평등합니다.

창세기 1:28-31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30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특성 중 일부를 우리와
공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사람들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돌보고 동물을 좋은 목적으로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그분의 창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만드시고 더 많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으로 축복하셨습니다.
29 절에서 우리는 식물이 번식할 수 있도록 씨가 있음을 봅니다.
식물은 더 많은 식물을 만들어 지구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식물과 동물처럼 번식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번식은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선하고 개방적이며 사랑스러운 관계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졌을 때, 그들은 더 많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창조 장에서 한 구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8-9

8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더라
9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나게 하시니라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이 많습니다.

그들은 행복하고 안전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가을이 올 때까지.

Chapter 2: 타락

창세기 3:1-5

1 뱀은 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보다 간교하니라 그는 여자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고 물으셨습니다.

2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되

3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사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4 그러나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5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악은 반역을 통해 세상에 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천사였기에 하늘을 떠나 천사의 삼분의 일을 데리고
갔습니다.

사탄은 이 새로운 인간들도 자신과 합류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들을 모집하기 위해 동산에 옵니다.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5 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불순종하고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6

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얼마도 주고 그녀와 함께 있던 그녀의 남편에게, 그는 먹었다.

6 절에서 기쁨과 욕망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풍부하고 유쾌한 정원과 아이들과 함께 즐기고 탐험하고 채울 수 있는 전 세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마음을 집중시킵니다.

죄는 금지된 것을 원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조상인 아담과 하와처럼 반역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반역을 어떻게 벌하시는지 봅시다.

창세기 3:17-19

17 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고통 속에서 그것을 먹을 것이다.

18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너희를 위하여 나게 하고 밭의 채소를 먹으라.

19 네가 흠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떡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은 후, 그들의 모든 관계가 손상되었습니다.

이 반역자들은 왕과 왕비를 원했기 때문에 진정한 왕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나 지금은 땅과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일이 어려워집니다.

질병과 재난은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합니다.

죄는 또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사이의 관계를 손상시켰습니다.

그들의 아들 중 하나가 자기 형제를 죽일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로마서에서 인간의 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타락시키는지에 대한 끔찍한 그림을 봅니다.

로마서 1:28-32

28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을 합당치 않게 여기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그 타락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사 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시니라
29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시기, 살인, 분쟁, 속임수,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험담,
30 훼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오만한 자, 거만한 자, 자만하는 자, 악을 창시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31 어리석고 믿음이 없고 무자비하고 무자비하며
32 그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작정을 알고도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옹기여기느니라

나쁜 소식입니다.

깨어 있고 깨달은 사람은 누구나 깨어짐이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고통은 바울이 로마서 1 장에서 묘사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결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의 관계를 깨뜨리면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깨집니다.

누가 이 모든 고통을 끝낼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모든 고통을 고칠 수 있습니까?

자신과 단절되지 않은 관계로 존재하는 참 하나님뿐입니다.

완전한 삼위일체,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하나의 완전한 공동체로 연합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챕터를 살펴보겠습니다.

Chapter 3: 구속

마태복음 3:13-16

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 또 보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서 다시 우리는 삼위일체의 세 구성원 모두가 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창조 때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구속을 가져오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구속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Redeem 은 다시 사거나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17 절에서 아들 예수를 "기뻐"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1-4

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니라

2 사십 주야를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3 시험하는 자가 나아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야기의 첫 번째 챕터에서 다른 캐릭터를 봅니다.

사탄은 거짓말과 유혹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더 많은 반군이 그의 대의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와 연합하게 할 수 있다면 사탄은 많은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안전하고 깨지지 않고 완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탄의 거짓말에 취약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의 세 사람은 함께 고장난 것을 고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아들 예수께서 반역자의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18

18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은 완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의 희생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의로운 구주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불의한 반역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서 8:1-2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2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정죄감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용서를 위해 예수님을 믿었고 그의 죽음이 당신의 죄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았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습니까?

이 구절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그를 왕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자유를 보십시오.

골로새서 1:13-14

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

3 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의 노예 상태에서 그의 백성을 다시 사십니다.

그는 우리 왕국의 어둠에서 우리와 같은 반역자들을 구출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들 왕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1 장의 정원으로 돌아간 것처럼 건강합니다.

고린도후서 5:17~21

17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늙은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라, 새 것이 왔다.

18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19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20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호소하사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21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7 절에 창조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사용하신 그 권능이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권능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때 거듭납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파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원과 도시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고정되어 있지만 자연 및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깨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싸운다.

우리는 전쟁과 범죄와 질병과 자연 재해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해의 사자로서 우리는 희망의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마지막 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Chapter 4: 회복

성서의 마지막 책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모든 추종자들을 아버지 집에 있는 하늘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재림하신 후에 일어날 일을 알려 줍니다.

요한계시록 21:1-6

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였더라

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처소가 사람과 함께 있도다 그는 그들과 함께 거할 것이며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4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전 것이 지나갔음이라

5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미쁘고 참되니 기록하라

6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목마른 자에게 내가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리라.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죽음과 울음과 고통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3 절에 하늘에 사망이나 곡함이나 고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처소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타락 이전 아담과 해와는 건강한 관계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건강한 관계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피조물과의 다른 모든 관계도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2 장과 3 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깨어진 모든 것이 고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고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1-5

1 그 천사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2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를 통해; 강 좌우에도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되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 다시는 저주받은 일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로다

4 그들이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5 그리고 밤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모든 구속받은 백성이 영원히 살 하나님의 성을 묘사합니다.

그 도시에서 우리는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를 봅니다.

1 장의 동산에 있던 강과 생명나무가 4 장의 도시에 다시 나타납니다.

God's Big Story 는 삶에서 죽음, 희망, 그리고 다시 삶으로 옮겨졌습니다.

4 개의 챕터를 빠르게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므로 앞으로 이 모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격려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정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고쳐주시는지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고 집으로 데려가 영원히 그와 함께 살게 하려는 모든 계획을 들은 후에 당신이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이 부서진 세상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늘 그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희망의 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동산과 도성 사이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